



* 등급정보 (닭고기) *

▷ 16개 업체에서 생산한 2백58만6천수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1등급은 97만3천수(37.6%), 1등급은 1백34만9천수(52.2%)를 차지, 전월(15개 업체)대비 9만1천수(3.4%) 감소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 및 출현율

(단위 : 수, %)

구분	등급판정수수	품질등급별 출현현황		
		1등급	1등급	2등급
'08년 1월~11월	23,187,247	7,375,277	1,276,858	2,835,112
	(100.0)	(31.8)	(56.0)	(12.2)
'08년 10월	2,676,819	889,727	1,540,901	246,191
	(100.0)	(33.2)	(57.6)	(9.2)
'08년 11월	2,586,324	972,768	1,349,476	264,080
	(100.0)	(37.6)	(52.2)	(10.2)

* 축산뉴스 (닭고기) *

‡ 양계산업 통계시스템 구축 절실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통계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종계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아 농협과 대한양계협회에서 종계DB구축사업을 2005년부터 벌이고 있지만 육계 등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국내 양계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관계자들은 매년 반복되는 수급조절 문제를 극복하고 질병발생시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전국양계분포도는 물론 육계계종별 사육현황과 양계산물비축현황, 배합사료수급동향, 소비현황 등 양계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 까지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열주체에서는 계약사육농가를 중심으로, 대한양계협회는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나름의 통계 구축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외 농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황일수 대한양계협회 팀장은 "통계청에서 양계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사육마리 수나 농가 수 같은 기본적인 것 뿐"이라며 "양계 전반의 세부사항에 대한 통계가 없으니 질병이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이라고 밝혔다. 김한웅 한국계육협회 부장 역시 "실질적으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 육계의무자조금관리위

수납기관 대표로 (주)하림 참석

한국계육협회는 지난 12월 1일 계열업체 중 선두기업인 (주)하림이 수납기관 대표로 관리위원회에 참여해 육계의무자조금 거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육계의무자조금은 실질적인 수납기관인 계열업체에서 의무자조금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도입에 난항을 겪어 온 만큼 (주)하림의 참여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육계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는 정부 관계자, 소비자 단체, 수납기관 대표 등 11명~25명으로 앞으로 학계와 유통전문가만 지명되면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현재 대의원의장이 공석이어서 학계와 유통전문가 지명을 위해 농식품부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관리위원구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조속히 육계의무자조금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